

재정통계 Statistics of Public Finance BRIEF

국가채무 Government debt



Nº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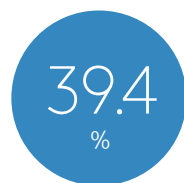
규모 Volume

국가채무(D1)

2019년 확정예산 기준 국가채무는 2018년 본예산 대비 32.6조원(4.6%) 증가한 740.8조원으로, GDP대비 비중은 39.4%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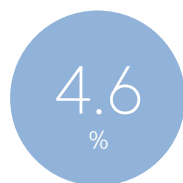
2019년 예산



GDP대비



전년 대비 증가액



전년 대비 증가율

※ 2019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4.25 국회제출)에 따르면, 채무 증가분(3.6조원)과 전년 실적 반영에 따른 감소분(-12.6조원) 등으로 731.8조원 예상

구성 Component

적자성 채무

426.5조원
57.6%

주로 일반회계 적자 보전 목적이며, 향후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하여야 하는 채무



금융성 채무

314.3조원
42.4%

대응되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로 외환시장 안정, 서민 주거 안정 등을 목적으로 발행된 채권



※ 2019년 국가채무(D1) 기준, 단위: 조원

국제비교 Comparis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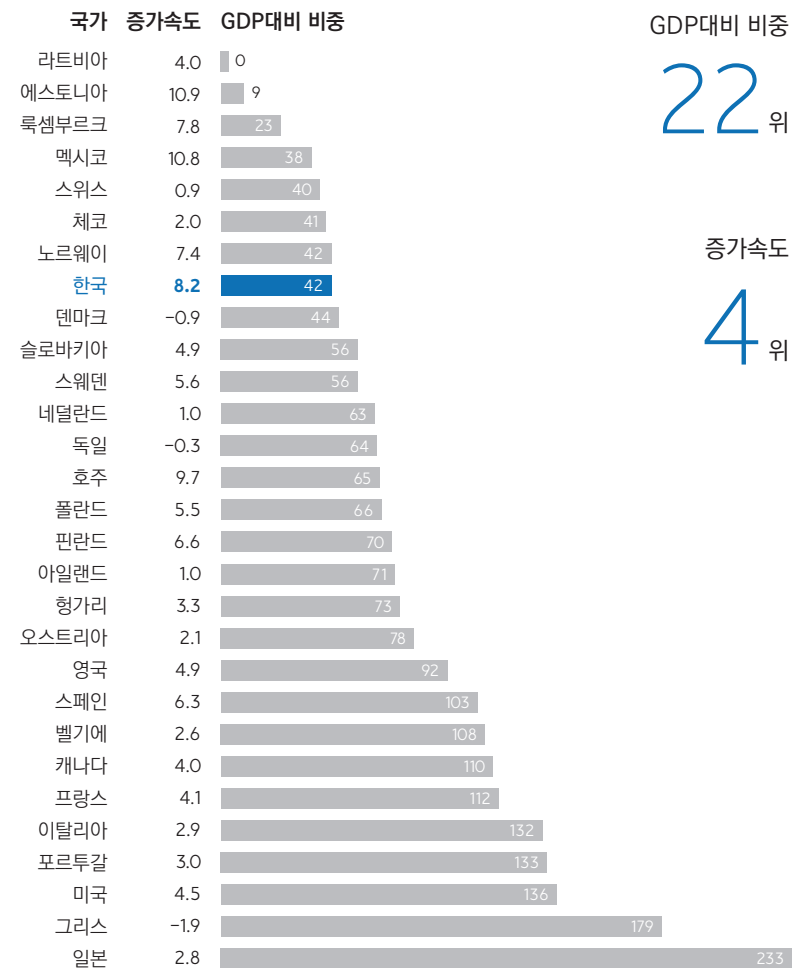
유형별
국가채무
(조원)

D1
2018
680.7

D2
2017
735.2

D3
2017
1044.6

2017년 기준
국제비교



GDP대비 비중
22 위

증가속도
4 위

※ 출처: OECD
※ 증가속도는 2011~2017년간 연평균 증가율, GDP대비 비중은 일반정부채무(D2) 기준

용어해설 Glossary

중앙정부 채무

「국가재정법」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 부담행위를 합하여 산출하는 채무
포괄범위는 중앙정부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이며, 공공기관의 장이 관리하는 기금의 채무는 제외

일반정부 채무(D2)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2001년 버전에 따라 발생주의 기준의 국채, 차입금, 국고채무부담행위를 합하여 산출하는 채무
포괄범위는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회계, 기금과 비영리공공기관을 포함

국가채무(D1)

IMF의 정부재정통계기준(GFSM) 1986년 버전에 따라 현금주의 기준의 중앙정부 국가채무에 지방자치단체의 순채무를 합산하여 산출(지방교육재정 순채무 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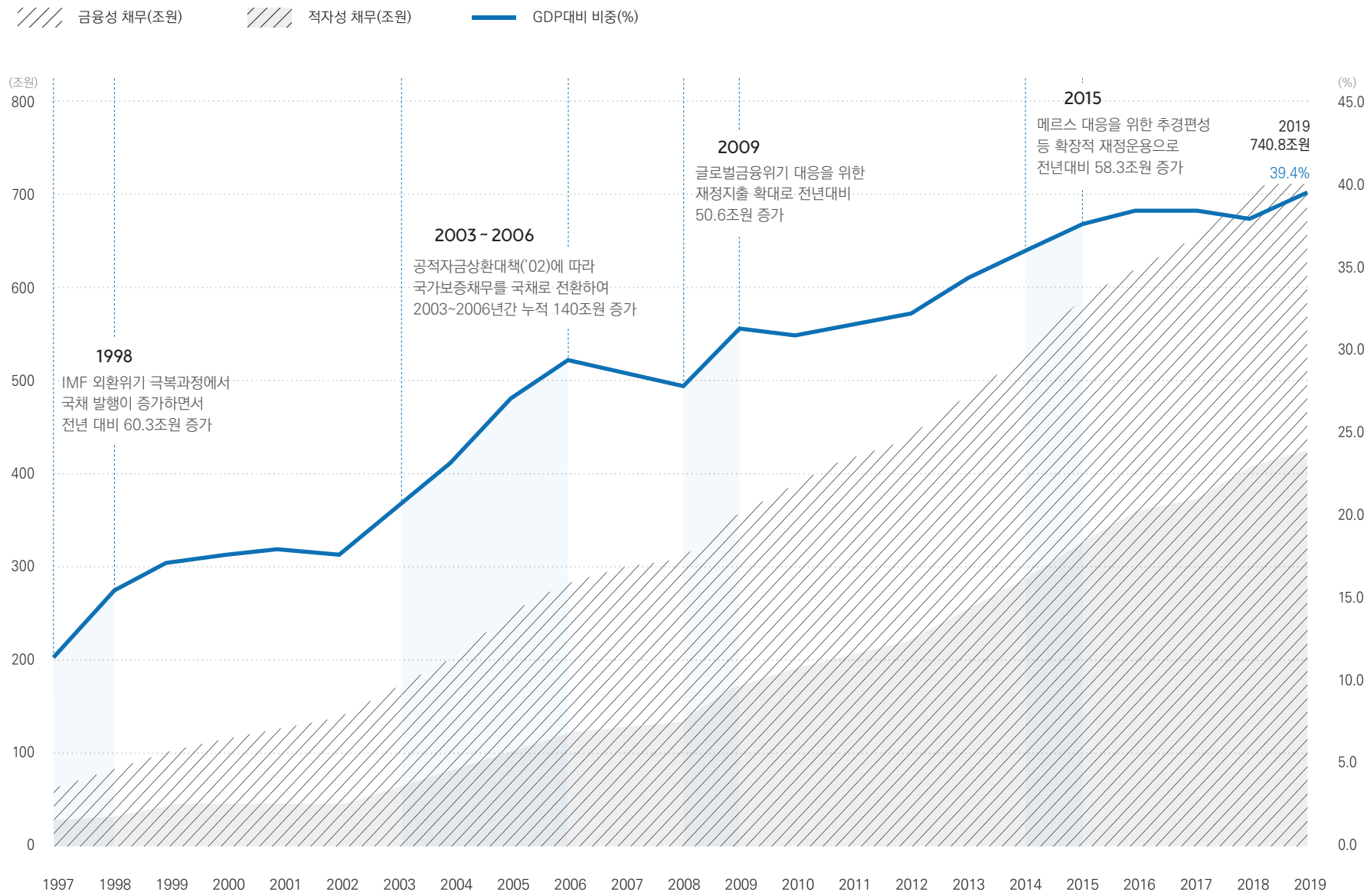
공공부문 채무(D3)

D2와 동일한 기준에서 작성되며, 비금융 공기업이 포함



04637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0, 메트로타워
T 02-6908-8200 F 02-6312-8959

발행처 | 한국재정정보원 발행인 | 김재훈
02-6908-8593



| 최근 10년간 평균 |

전년대비 증가액

39.3 조원

연평균 증가율

7.5 %

연평균
적자성 채무 증가율

9.7 %

우리나라 국가채무(D1)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로 연평균
7.5%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GDP대비 비율은 2009년 30%대에
진입한 이후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2019년 예산기준 39.4%로 예상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금액(조원)	60.3	80.4	98.6	111.2	121.8	133.8	165.8	203.7	247.9	282.7	299.2	309.0	359.6	392.2	420.5	443.1	489.8	533.2	591.5	626.9	660.2	680.7	740.8
GDP대비 비중(%)	11.4	15.3	17.1	17.5	17.7	17.6	20.4	23.3	27.0	29.3	28.7	28.0	31.2	31.0	31.6	32.2	34.3	35.9	37.8	38.2	38.2	38.2	39.4
전년대비 증가율(%)	-	33.3	22.6	12.8	9.5	9.9	23.9	22.9	21.7	14.0	5.8	3.3	16.4	9.1	7.2	5.4	10.5	8.9	10.9	6.0	5.3	3.1	8.8

※ 국가채무(D1) 기준
※ 2018년까지 결산기준, 2019년 예산기준